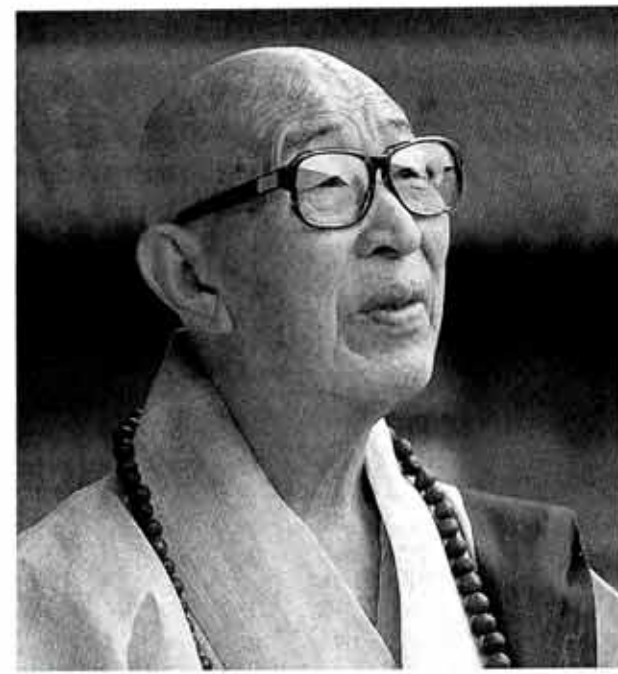


극락새가 피안 노래하는 부처의 땅



◀소박함과 화려함, 자연과 사람의 손길이 행복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불갑사 대웅전(보물 830호).



모악산의 일출 **수산스님**

노덕 많으면 절 장엄, 대중은 환희심

절집에 노덕(老德) 많으면 절이 장엄하고 대중들이 환희심을 낸다고 합니다. 수산 스님을 뵈면서 그 말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부처님 만나러 온 할머니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면서 안부를 묻는 수산 스님. 어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겠습니다.



모악산 불갑사

마라난타가 세운 절

봉숭아꽃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여염집 마당에서나 봐 온 꽃을 이속한 산골 절에서 만난 감흥은 각별했습니다. 울 밑, 두엄자리 곁, 더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수줍게 붉은 가슴을 열어 보이는 꽃. 그러다가 어느 첫눈 오는 날, 손톱 끝에서 눈썹달로 뜨는 꽃 그 꽃이, 한 나절을 바쳐 달려온 서해바닷가 전라도 영광 땅을 지척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불갑사 은 마당이 내 집인 양 편안해졌습니다.

라난타가 남중국 동진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수도 한성에 이르기 전 영광 땅에 도착하여 불법을 펴니 이곳이 법성포였다고 한다. 그리고 법성포에서 가까운 모악산에 마라난타가 절을 세웠는데, 바로 이 사람이 으뜸 되는 절(佛寺之所)이라는 뜻의 불갑사다.

불갑사 고적기에 전해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에 불교가 유입된 지 12년 뒤인 침류왕 원년(384)에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후 불갑사는 아홉 차례에 걸친 중창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데, 고려 말 충렬왕대(1274~1308)의 왕사였던 각진국사(覺眞國師, 1270~1355)에 의한 3창 때는 전각의 규모가 500여 칸에 이르는 거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



면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엄수행체계 상징 53계단

지금 불갑사는 소박하리만큼 작고 고운 절입니다. 모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을 끼고 배롱나무 꽃 나무백일홍 곁에 핀 들머리를 지나면 부처님 품으로 발길을 이끌여 주는 돌계단이 나타납니다. 천왕문까지 53계단. 이른바 화엄경의 53수행 체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왕문을 지나 만세루를 돌아 석축을 오르면 대웅전 앞마당입니다. 대웅전 맞은편은 만세루, 좌우로는 명부전과 일광당이 그 구조를 이루며 그리 넓지 않은 절마당을 한없이 넓게 열리는 화엄의 광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불갑사 역시 대웅전(보물 830호)이 가장 빼어나습니다. 그런데 대웅전의 앞음새가 여느 사찰과 다릅니다. 부처님의 좌향 또한 건물의 측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서쪽, 부처님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라난타를 기리기 위해 그가 건너온 서해 바다를 향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남쪽을 보고 계신 것은 지세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 게 주지 스님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법당이 불갑사뿐인 것은 아닙니다. 부석사 무량수전과 마곡사 대광보전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또 달리 불갑사의 대웅전은 부처님의 눈길이 닿는 측면 벽까지 꽃살문을 달아 절 울리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 꽃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불단 불국도를 연상케

조선 후기의 건물 중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웅전은 평범한 눈으로 봐도 그 빼어난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정교한 조각품 같은 꽃살 문, 화려함에 우아함을 더한 내부 단청, 내부 공포 사이의 벽에 그려진 조사 진영,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정성과 솜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불단 쪽입니다. 민화풍의 조각이 온갖 상상력을 자아내는 좌대, 천인들의 손으로 만든 듯한 달집, 그리고 달집 아래 모빌처럼 드리워진 구름과 극락조. 불국도가 바로 이런 곳으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오 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부속 암자들은 도량과 한문을 이

루면서도 각기 독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도암, 오진암, 불영대, 해불암, 전일대. 그 이름들은 수행-견성-보람-부처-열반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불교 수행 체계의 전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갑사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9월이면 꽃을 피워울리는 상사화가 지천으로 피어난다는 점입니다. 잎이 다 시들고 난 뒤 꽃대가 홀로 솟아 꽃피운다 하여 이별초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한 꽃. 그러나 이 꽃은, 잎이 다 시들고 지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때, 홀로 솟아올라 꽃을 피우기 때문에 '피안화(彼岸花)'라고도 부릅니다. 나는 그 이름을 지지합니다.

9월이면 '피안화' 만개

붉은 상사화는 9월이 돼야 피지만 연분홍색 꽃잎의 상사화는 요즘에도 꽃을 피웁니다. 지금 불갑사 대웅전 옆에도 그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제가 아주 많이 좋아했던 한 스님이 몸을 바꾸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갑사 대웅전 옆에서 본 그 꽃을 스님의 환생으로 알겠습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입산 출가 후 줄곧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한 남자의 구수하면서도 진솔한 수행이야기!!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수행, 가슴을 저미는 애뜻한 사연, 세속을 떠난 여유,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 우리 삶을 일깨우는 작은 물림

선방 이야기

토굴土窟이야기

승인 스님 씀

덥고 한맛에 길들여졌다가 양념 하나 안된 자연식을 맛보았을 때의 느낌이 이렇까. 복잡한 사회에서 숨들릴 틈 없이 빠르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청량제가 될만한 책. 읽다보면 문득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한 느낌이 따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대한매일신문

국판/230쪽/7,500원

티베트 밀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수인법문>에 대한 해설!

심오 법문이란 마음 수행의 길에서 항상 수지하면서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수 있는 팔각한 몇 구절의 요약된 법문을 말한다. <대수인법문>은 대승의 교의를 통달하여 종파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심오 법문이다. 이 원문을 자주 독송하고 심오로 삼아 호지한다면 흐트러지기 쉬운 일상생활에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수행심과 신앙심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박건주 역해/국판양장/205쪽/8,000원

티베트 밀교 무상 심요법문

원리를 알면 漢字를 쉽게 깨우칠 수 있다!

한자는 대부분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이거나 추상적인 지사문자,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나 글자의 어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하여 다른 글자의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이제 나도 한자 전문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쉽게 익히도록 이야기식으로 꾸미고 있는데, 글자마다 그 글자가 본시 어떤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하는 어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말을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1,800여 한자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신용태 저/신국판/554쪽/17,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한문 문법과 해설! 할기 쉬운 한문 해석법
심재동 저/신국판/383쪽/12,000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태운빌 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출판부) 926-8361